

광주FC 돌풍 근원은 ‘이정호 감독 리더십’

지난해 K리그2 우승과 함께 1부리그에 돌아온 광주FC는 시즌 개막 전까지만 해도 ‘강등 1순위’로 꼽혔다. 내로라하는 스타 선수 영입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훈련 여건도 열악했기 때문이다. 이정호 감독과 선수단은 K리그1 구단 중 가장 적은 예산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단 역사상 1부리그 최다 승리와 승점, 창단 최초 1부리그 전 구단 상대 승리 등 굵직한 기록을 새로 써내려갔다. 특히 K리그1 3위에 오르며 아시아 무대까지 진출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광주FC의 올 시즌을 되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광주FC 2023시즌 결산

①

탄탄한 수비·조직력 기반 공격 끊이지않는 새 전술 연구 욕망 “선수들의 성장은 나의 자신감”



이정호 감독은 지난해 광주FC의 K리그2 우승을 이끌며 감독상을 수상한 뒤 “광주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광주 선수단과 저는 큰 꿈을 안고 K리그1에 도전한다. 내년에도 큰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소감을 대신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개막 미디어데이에서는 “광주만의 색깔을 내겠다. 소신을 꺾지 않고 우리 색깔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각오다”며 “잔류가 목표가 아니다. 개막전부터 광주의 축구가 어떤지 알리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흙수저의 꿈’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 1부리그에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선수단을 꾸린 팀이 상위권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광주를 ‘4강 후보’로 선택한 감독은 전무했다.

이 감독은 ‘강등 1순위’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개막전에서 수원삼성을 상대로 1-0 신승을 거두며 돌풍의 시작을 알렸고, 올 시즌 16승 11무 11패(승점 59)를 거두며 구단 역사상 1부리그 최다 승리와 승점 기록을 모두 경신했다.

또 구단 역사상 최초로 1부리그 전 구단 상대 승리를 거뒀고, 최종 성적 3위에 오르면서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ACLE PO) 진출권까지 획득했다. 승격 직후 이뤄낸 시민구단의 쾌거였다.

광주가 올 시즌 막강한 돌풍을 일으키며 시민들의 자랑으로 거듭난 데는 이 감독의 지도력이 절대적이다. 스스로를 ‘축구에 미친 사람’으로 표현할 정도로 팀의 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았다.

이 감독은 시즌 최종전에서 “올해 광주의 돌풍은 저 때문이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겠다”며 “선수들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있다.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 “승리를 위해 우리만 잘하면 된다. 내년에도 1부리그 팀들을 계속 때리겠다. 상대를 어디까지 끌어내릴지 항상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거침없이 하겠다. 잘 보이며 하지 않고 실력을 키우는데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감독은 탄탄한 수비와 조직력 기반의 공격을 구사하는 ‘주도권 축구’를 위해 선수단을 철저히 조련했다.

훈련 과정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선수들의 움직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면 강한 질책도 가했다.

훈련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과 적응력을 선보인 선수들을 실전에 투입했다.

이순민과 엄지성, 정호연, 허을 등 국가대표 자원들은 물론 아사니와 티모, 토마스, 베가 등 외국인들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경쟁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했다. 확실한 주전이 없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실전에 투입됐더라도 지시를 이



이정호 광주FC 감독이 지난 9월1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하나원큐 K리그1 2023 3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가운데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리자 포효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행하지 못하면 즉각 불호령이 떨어졌다. 스스로 ‘경기장 내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90분 내내 선수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강하게 지시를

내렸다. 경기장 밖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수들을 감싸는데 집중했다. 승리의 공은 선수들에게 돌리고, 패배의 원인은 스스

로에게서 찾았다. 선수단 전원에 책은 물론 올 시즌 5골을 터트린 이근희에게는 신발, 무실점 경기 15회를 달성한 골키퍼 김경민과 이준에게는 골프채도 선물하며 월급도 자신 반납했다.

지난 9월 카카오톡 배경 사진을 토마스 와 포옹하는 사진으로 설정했는데 현재는 골프채를 선물받고 미소 짓는 김경민의 사진으로 해냈다.

상태 메시지의 수적전석(水滴穿石·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음덕양보(陰德陽報·남이 모르게 덕행을 쌓은 사람은 훗날 그 보답을 버젓이 받는다), 이청득심(以聽得心·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 역시 선수들을 위한 말이다.

이 과정에서 이순민과 정호연이 지난 4일 각각 K리그1 베스트 11과 영플레이어를 수상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미드필더로 거듭나기도 했다. 이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하도록 도움을 줬다. 최고의 감독이다”고 말했다.

전술에 대한 욕심도 강하다. 이 감독은 박원고 분석 코치와 함께 클럽하우스 인근의 24시간 카페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 광주 경기와 훈련 영상을 분석하면서 선수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브라이튼과 아스널, 맨체스터시티 등 프리미어리그는 물론 고등학교와 대학교 리그까지 전술에 도움이 될만한 축구라면 모두 찾아본다.

이번 겨울 휴가 역시 반납했다. 이 감독은 곧 영국으로 출국해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현지에서 지켜보고 전술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영국에 다녀오면 1월부터 선수단을 소집해 이른 새 시즌 준비에 돌입한다.

새해 광주와 이 감독은 다시 한번 기적에 도전한다. 이 감독은 “새 시즌은 위기라고 생각한다. 상대 팀들도 우리를 철저히 대비할 것이고, ACL이라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선수 이적 제의도 많이 올 것이다”면서도 “3위보다 더 잘하고 싶다. 떨어지지 않고 위로 가고 싶다. 훈련하고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이소미, LPGA 투어 Q시리즈 수석 합격 도전

4라운드 함께 공동 2위 ‘호주 교포’ 로빈 최와 3타차

‘완도 출신’ 여자프로골퍼 이소미(사진)가 2024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출전권이 걸린 ‘켈리파잉(Q) 시리즈’ 수석 합격에 도전한다.

이소미는 5일(한국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매그놀리아 그로브골프코스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쳤다.

이로써 이소미는 1~4라운드 합계 18언더파 268파를 기록하며 요시다 유리, 사이고 마오(이상 일본)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이소미는 21언더파 265타로 단독 선두인 로빈 최(호주)를 3타 차로 추격하며 남은 5, 6라운드에서 역전 우승을 노릴 수 있게 됐다.

국가대표 출신인 이소미는 완도 출신으로 한국 남자 골프의 살아 있는 전설 최경주의 모교이기도 한 완도 화흥초등학교에



서 골프 선수의 꿈을 키워왔다.

이소미는 오래된 연습장에서 스윙을 다듬고 백사장에서 벙커샷 연습을 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고 지난 2019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데뷔해 통산 5승을 쌓았다.

KLPGA 투어 통산 3승의 성유진은 5타를 줄여 14언더파 272타로 공동 5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 컷 기준은 3언더파 283타, 공동 65위였다.

올해 Q시리즈는 6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3일 경기가 악천후로 순연돼 최종 6라운드가 7일로 연기됐다.

104명이 출전한 Q시리즈는 6라운드 108홀로 진행된다. 4라운드까지 성적을 통해 5~6라운드 진출자가 정해진다.

이후 최종 6라운드 결과 1~20위까지는 내년 LPGA 투어 출전권을 얻는다.

최동환 기자

전남체육회 수구팀, 2023 방콕 초청 수구대회 우승

전남도체육회 수구팀이 2023 방콕 초청 수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체육회 수구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태국 방콕 추랍혼 아쿠아틱 클럽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오픈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번 대회는 한국,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괌, 말레이시아, 대만 등 총 9개국 14개 팀이 출전했다.

무안초, 김종하배 전국꿈나무핸드볼대회 우승

여초부… 가능초 14-12 제압

무안초 여자핸드볼이 제8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핸드볼대회에서 올해 첫 우승을 차지하며 기분 좋게 한 해를 마무리지었다.

무안초 여자핸드볼팀은 지난 4일 강원

전남도체육회 수구팀은 예선리그에서 싱가포르 ET를 11-8로, 호주 CAN를 11-9로, 필리핀 RED를 10-8로, 인도네시아 WJWP를 11-8로, 말레이시아 MSF를 16-5로 각각 이기고 태국 CAC에 7-8로 졌다.

예선 조별리그 5승 1패로 준결승에 진출한 전남도체육회 수구팀은 호주 NSW를 6-5로 꺾고 결승에 올라 싱가포르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초부 결승에서 가능초를 14-12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무안초는 A조 예선에서 천안성정초(19-5 승)와 금천초(18-9 승)를 연파했으나 가능초(10-12 패)에 져 2승 1패를 기록, 조 2위로 8강에 진출했다.

SGP와 치열한 접전 끝에 13-12, 한 점차 승리를 거뒀다.

진만근 전남도체육회 수구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목표로 한 우승을 차지해 매우 기쁘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 선수들이 한층 더 강해지고 성장해 다음엔 이보다 더 큰 대회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동환 기자

8강전서 인천송현초를 14-8로, 준결승서 천안서초를 18-13으로 꺾은 무안초는 결승서 다시 만난 가능초를 상대로 시종 일관 리드를 잡으며 2점 차 승리로 예선리그 패배를 설욕하고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6득점 1도움의 맹활약으로 팀을 우승으로 이끈 무안초 센터백 박현진은 대회 여초부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최동환 기자